

일부 대학생의 감각처리능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이지현^{1*}, 남택길²

¹영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²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some university students

Ji-Hyun Lee^{1*} and Taek-Gill Nam²

¹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Young-d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jeon Health College

요약 이 연구는 성인 대학생의 감각처리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177명이 작성한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 점수와 대인관계문제 검사 점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낮은 감각 등록'영역은 KIIP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찾기' 영역은 통제지배($r=0.150, p<0.05$), 자기희생($r=0.175, p<0.05$), 과관여($r=0.218, p<0.01$), 대인적과민성($r=0.196, p<0.01$), 사회적인정욕구($r=0.149, p<0.05$)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민감성'영역은 KIIP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회피' 영역은 KIIP 척도 중 통제지배($r=0.403, p<0.01$), 자기중심성($r=0.420, p<0.01$), 대인적비수용성($r=0.452, p<0.01$), 공격성($r=0.417, p<0.01$)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감각처리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와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낮은 감각등록과 감각민감성 영역이 대인관계 문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177 university students whose curricula were similar. The researchers made the subjects fill out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nd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KIIP). The analysis of the relevancy between the Adolescent/Adult profile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 showed that 'Low Registration' is related to all aspects of KIIP. 'Sensation Seeking' showed relation with Domineering/Controlling($r=0.150, p<0.05$), self sacrificing($r=0.175, p<0.05$), Intrusive ($r=0.218, p<0.01$), Interpersonal sensitivity($r=0.196, p<0.01$), and Need for social approval($r=0.149, p<0.05$). 'Sensation Sensitivity' showed relation with all aspects of KIIP. 'Sensation avoiding' showed relatively high relation with Domineering/ Controlling($r=0.403, p<0.01$), Vindictive($r=0.420, p<0.01$), Interpersonal ambivalence ($r=0.452, p<0.01$), and aggression($r=0.417, p<0.01$). Through this research, it turned out that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 are generally related, especially 'Low Registration' and 'Sensation Sensitivity' are highly related to the Interpersonal Problem.

Key Words : Interpersonal problem, Sensory processing

1. 서론

감각처리는 중추신경계 내에서 감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절, 통합, 조직화하여 행동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1]. 감각통합은 뇌의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으로

감각에 의해 감지된 정보를 조직화하여 학습과 사회적인 행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능력이다[2]. 감각처리 능력은 행동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선택 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3], 감각처리능력과 그 사람의 행동 및 환경적 구성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개인과 환경 사이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Lee(Young-dong Univ.)

Tel: +82-43-740-1414 email: ally9296@naver.com

Received February 25, 2013

Revised 1st April 4, 2013, 2nd May 14, 2013)

Accepted June 7, 2013

의 교량역할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게 된다[4]. 감각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생리학적 반응, 행동, 정서, 인지, 감각운동 영역의 발달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3,5,6], 지적수준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모든 연령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7].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8,9], 성인의 경우 타인의 말이나 행동, 사회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느리게 반응하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여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4]. 이러한 것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반복하게 된다[10]. 성인의 감각처리 능력과 인성의 상관성 연구에서 감각 등록 저하는 감정과 정서와 관련성이 있고 감각 찾기와 감각 민감성은 자신감 및 지도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11]. 성인의 감각처리 유형과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4,12-14] 감각 민감성은 불안, 우울, 애착과 상관성이 있고, 낮은 역치 수준은 자극에 필요 이상 반응을 유발하게 되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감각 찾기는 타인에 대한 접근성과 개인의 기본조절과 상관성이 있고 감각 민감성은 개인의 기본조절과 관련이 있고 감각 회피는 적응능력, 접근성, 기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 특히 감각 민감성과 감각 회피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환경에 대한 부적응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4,12-14].

인간의 삶은 다양한 형태의 끊임없는 대인관계로 이루어진다. Heider[15]는 대인관계를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16]. 타인과의 친밀하고 효율적인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인간은 성장과정 속에서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간다[17]. 인간의 적응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성이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8]. 인간이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집단 내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며 개인 및 사회적 소임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19]. 대인관계가 사회적 역할과 정서적 안녕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 Sullivan[20]은 한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근원이 바로 대인관계이며, 이를 통해 개인

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아나간다고 하였다. 대인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자원이 되며[21],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이다[22].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모든 활동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소속감과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위해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23].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아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24].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학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서적 고통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23].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에게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25]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정신질환 발생의 근원이 되며, 좌절감과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 신뢰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부족해지게 되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된다[26]. Ryff와 Singer[27]은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는 성인의 경우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 리더십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Kagan[28]은 인간관계 기술 부족이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는 대학생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29].

감각처리 능력에 대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성인의 감각처리 능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30]. 하지만 최근 성인의 뇌 가소성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고[31], 감각통합에 어려움을 보이는 많은 성인에게서 감각통합치료의 효과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2]. 아동의 감각처리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성인의 감각처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학생의 감각처리 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는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시행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충청도와 대전 지역의 교과과정외에 유사한 대학생 177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질문지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

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이하 AASP))과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이하 KIIP))를 작성하게 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정확히 응답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17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용어 정의

2.2.1 감각처리 능력

감각처리란 중추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관련된 기능으로, 감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절, 통합하며 조직화하는 과정이며 행동적 반응이다[1].

2.2.2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능력이란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15].

2.3 연구도구

2.3.1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

성인의 감각처리를 평가하는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감각경험에 대한 행동반응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고안된 평가도구이다[33].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Dunn의 감각처리모델(Sensory Processing Model)에 기초를 두고, 신경학적 역치와 행동과의 관계를 신경학적 역치는 높고(High), 낮음(Low)으로, 행동 반응은 능동적(Active), 수동적(Passive)인 행동 반응으로 나뉘어 설명한다. 역치가 낮을 경우 낮은 강도에도 쉽게 반응하는 반면에 역치가 높을 경우 높거나 강한 자극에도 수동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게 된다[4,34]. 본인 스스로 감각자극에 대한 행동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정 행동의 원인이나 환경자극의 선호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다[35].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6개 영역, 총 60문항으로 미각/후각처리

8문항, 동작 처리 8문항, 시각처리 10문항, 촉각처리 13문항, 활동 수준 10문항, 청각처리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사용되어 ‘전혀(5%) 그렇지 않다’가 1점, ‘가끔(25%) 그렇다’가 2점, ‘종종(50%) 그렇다’가 3점, ‘자주(75%) 그렇다’가 4점, ‘항상(95%) 그렇다’가 5점으로 기록된다. 60문항은 역치 수준과 행동반응에 따라서 다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뉘어 1사분면은 ‘낮은 감각 등록’, 2사분면은 ‘감각 찾기’, 3사분면은 ‘감각 민감성’, 4사분면은 ‘감각 회피’로 나뉜다. 개인의 점수는 각 4분면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고 분포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감각처리 정도를 이해 할 수 있다. 각각의 4분면의 총점을 구한 후 해당되는 점수의 점수분포에 따라 결과를 해석한다[Table 1]. 본 연구는 영문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을 한글판으로 번역 업체에 감수를 받아 영문판과 한글판의 내적 일치도 .72를 얻은 한글판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36]. AASP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754이었다.

2.3.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대인관계 문제 척도는 김영환 외 [37]가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밝히고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8개의 원형척도와 5개의 성격장애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0~4점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고 수검자는 척도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가까운지에 따라 점수에 체크하게 된다. 8개의 원형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성격장애척도는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 부족 척도로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IIP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0.934이었다.

[Table 1] Quadrant Summary Chart

Quadrant	Raw score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Low registration	/75	15~18	19~26	27~40	41~51	52~75
Sensation seeking	/75	15~27	28~41	42~58	59~65	66~75
Sensation sensitivity	/75	15~19	20~25	26~40	41~48	49~75
Sensation avoiding	/75	15~18	19~25	26~40	41~48	49~75

2.4 자료분석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과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15.0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 총 177명 중 남자가 53명으로 29.9%, 여자는 124명으로 70.1%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고, 연령 분포는 19세 이하가 2.3%, 20~24세가 79.7%, 25~29세가 14.1%, 30~34세가 3.4%, 35세~39세가 0.5%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
Sex	Male	53	29.9
	Female	124	70.1
Age (Year)	15~19	4	2.3
	20~24	141	79.7
	25~29	25	14.1
	30~34	6	3.4
	35~39	1	0.5

3.2 감각처리 유형

대학생 177명의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의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과 ‘낮은 감각 등록’의 평균 점수는 31.3점, ‘감각 찾기’의 평균 점수는 37.5점이었다. ‘감각 민감성’의 평균 점수는 36.7점, ‘감각 회피’의 평균 점수는 36.5점이었다[Table 3]. ‘감각찾기’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적음’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Mean scores of sensory processing profile

Variables	Mean ± SD	Interpretation
Low registration	31.3±7.5	Similar to most people
Sensation seeking	37.5±6.8	Less than most people
Sensation sensitivity	36.7±8.6	Similar to most people
Sensation avoiding	36.5±8.4	Similar to most people

3.3 대인관계문제 검사 점수

대학생 177명의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과 통제지배척도는 9.91점, 자기중심성척도는

11.2점, 냉담 척도는 13.4점, 사회적억제척도는 14.45점, 비주장성척도는 17.73점, 과순응성척도는 17.9점, 자기희생척도는 17.91점, 과관여척도는 14.27점, 대인적과민성척도는 14.31점, 대인적비수용성척도는 14.76점, 공격성척도는 8.91점, 사회적인정육구척도는 13.45점, 사회성부족척도는 17.12점이었다[Table 4].

[Table 4] Mean scores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Variables	Mean	SD
Domineering/ Controlling	9.91	5.57
Vindictive	11.2	4.90
Cold	13.4	5.98
Socially inhibited	14.45	7.06
Nonassertive	17.73	7.19
Overly accommodating	17.9	6.64
Self-sacrificing	17.91	5.92
Intrusive	14.27	5.47
Interpersonal sensitivity	14.31	5.12
Interpersonal ambivalence	14.76	5.66
Aggression	8.91	5.39
Need for social approval	13.45	5.27
Lack of sociability	17.12	8.4

3.4 감각처리능력과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AASP와 KIIP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낮은 감각 등록’영역은 KIIP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냉담척도($r=0.504, p<0.01$), 사회적억제($r=0.525, p<0.01$), 비주장성($r=0.568, p<0.01$), 과순응성($r=0.537, p<0.01$), 사회성부족척도($r=0.564, p<0.01$)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찾기’ 영역은 통제지배($r=0.150, p<0.05$), 자기희생($r=0.175, p<0.05$), 과관여($r=0.218, p<0.01$), 대인적과민성($r=0.196, p<0.01$), 사회적인정육구($r=0.149, p<0.05$)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민감성’영역은 KIIP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적 비수용성 척도($r=0.427, p<0.01$)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각회피’ 영역은 KIIP 척도 중 과순응성, 자기희생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제지배($r=0.403, p<0.01$), 자기중심성($r=0.420, p<0.01$), 대인적비수용성($r=0.452, p<0.01$), 공격성($r=0.417, p<0.01$)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AASP and KIIP

KIIP	AASP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ation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Domineering/Controlling	.298**	.150*	.391**	.403**
Vindictive	.409**	.051	.378**	.420**
Cold	.504**	-.113	.285**	.376**
Socially inhibited	.525**	-.110	.311**	.367**
Nonassertive	.568**	-.042	.290**	.181*
Overly accommodating	.537**	.090	.219**	.088
Self-sacrificing	.430**	.175*	.214**	.135
Intrusive	.362**	.218**	.321**	.274**
Interpersonal sensitivity	.489**	.196**	.343**	.279**
Interpersonal ambivalence	.494**	.038	.427**	.452**
Aggression	.309**	.123	.380**	.417**
Need for social approval	.467**	.149*	.252**	.175*
Lack of sociability	.564**	-.100	.299**	.314**

* : p<0.05, ** : p<0.01

4. 결론

Erikson[38]은 성인기 초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라고 하였다. 때문에 친구관계, 이성 관계, 선후배관계, 가족, 교수와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의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영향을 미친다[23]. Erikson[38]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미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기에 속하지만 심리/사회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이고 불안정과 혼돈되기 쉬운 시기이다. 감각처리능력에 있어 행동 및 환경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함에 따라 개인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게 된다[4].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인 감각처리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대학생 177명의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의 평균 점수를 알아본 결과 ‘낮은 감각 등록’, ‘감각 민감성’, ‘감각

회피’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함’으로 나타났지만 ‘감각 찾기’의 평균 점수는 37.5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적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경 등[36]의 연구와 최종덕 등[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과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낮은 감각 등록’ 영역은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냉담척도($r=0.504, p<0.01$), 사회적억제($r=0.525, p<0.01$), 비주장성($r=0.568, p<0.01$), 과순응성($r=0.537, p<0.01$), 사회성부족척도($r=0.564, p<0.0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감각 등록이 낮으면 역치 수준이 높고 수동적인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극을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극이나 낮은 강도의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못해 사회생활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4,34]. 냉담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표현이 어렵고 친밀하게 지내기 어려운 냉담성을 말하며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느끼기 어렵고 긍정적인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적 억제 척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당황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에 참여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비주장성 척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비주장적이라고 표현한다[38]. 과순응성 척도는 너무 쉽게 설득, 이용당하고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순종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 사회성 부족 척도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37]. Jerome과 Liss[13]의 연구에서는 감각등록 저하는 불안과 회피반응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대처유형에서 부인(denial), 정신/행동적 부적합 반응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최종덕의 연구[11]에서는 ‘낮은 감각 등록’은 감정과 정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감각 역치가 높고 수동적인 행동 양상이 높을 경우 자극에 대해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더욱 불안해지면서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순종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감각찾기’ 영역은 통제지배($r=0.150, p<0.05$), 자기희생($r=0.175, p<0.05$), 과관여($r=0.218, p<0.01$), 대인적과

민성($r=0.196, p<0.01$), 사회적 인정욕구($r=0.149, p<0.05$)에서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지배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희생 척도가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봉사하려는 경향이 있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허용적이다. 과관여 척도가 높은 사람은 불임성이 있고 개방적이며 사교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인적 과민성 척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충고나 비판을 무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적 인정 욕구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는 기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가 강하다[37]. 감각 찾기 점수가 높으면 역치가 높으면서 적극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능동적 대처기술이 나타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나 대처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적극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허용적이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각민감성’영역은 KIIP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적 비수용성 척도($r=0.427, p<0.01$)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적 비수용성 척도는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가 어렵고 타인을 지지하고 수용하기가 어렵다[11]. ‘감각 민감성’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로 인해 주어지는 감각과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낮은 강도에도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 역치가 낮고 수동적일수록 수줍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고 우유부단 할 수 있다. 사회공포증과 인격 장애 환자의 불안증과 관련이 있고 부적응과 연관이 있다[37]. 이는 낮은 역치로 인한 불편함과 민감성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본인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38].

‘감각회피’ 영역은 KIIP 척도 중 과순응성, 자기희생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제지배($r=0.403, p<0.01$), 자기중심성($r=0.420, p<0.01$), 대인적비수용성($r=0.452, p<0.01$), 공격성($r=0.417, p<0.01$)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지배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중심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주 다투고 앙심을 품을 수 있다[38]. 대인적 비수용성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가 어렵다. 공격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태도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상대방에게 분노나 복수심을 많이 느끼고 자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감각회피는 낮은 역치와 민감한 자극을 회피하려는 적극적 행동반응을 나타낸다[37]. Jerome 과 Liss의 연구[13]에서 불안과 회피 반응과 연관이 있고 적절한 대처기술 보다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낮은 감각 역치와 부적절한 회피반응으로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상자수가 일부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 외의 심리학적인 검사를 함께 실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감각처리 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성인의 감각처리 문제와 심리학적인 다양한 문제들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M. H. Park, K. M. Kim. The necessity for adult's sensory processing evaluating tool and the introduction of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Vol. 4, No. 1, pp. 1-12, 2006.
- [2] K. M. Kim, J. M. Kim, J. S. No, S. H. Park, Y. Y. You, M. Y. Jang, Y. H. Choi, J. S. Choi. Sensory and Integration and the Child. pp. 3-12. KoonJa. Seoul. 2006.
- [3] Dunn W. The sensations of everyday life: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Am J Occup Ther, Vol. 55, No. 6, pp. 608-620. 2001. DOI: <http://dx.doi.org/10.5014/ajot.55.6.608>
- [4] Brown CE, Dunn W.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San Antonio; A Harcourt Assessment Co, 2002.
- [5] H. R. Kwon, et al., Building bridges through sensory intelgration. Yeong Mun Publishing Company. 2005.
- [6] Yack E, Aquillia P, Sutton S. Building bridges 2nd Las Vegas: Sensory resources. 2002.
- [7] Pohl P. S., Dunn W, Brown C. The role of sensory processing in the everyday lives of older adults. Occup Ther J Rese, Vol. 23, No.3, pp. 99-106, 2003.
- [8] J. Y. Shin, H. J. Shin, H. H. Jo.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Skill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for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Vol. 3. No. 1. pp. 1-13, 2005.
- [9] Case-smith J, Bryan T. The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y with sensory integration emphasis on preschool-age children with autism. *Am J Occup Ther*, Vol. 53. No. 5. pp. 489-497, 1999.
DOI: <http://dx.doi.org/10.5014/ajot.53.5.489>
- [10] Cohn E. S., Cermak S. A. Including the family perspective in sensory integration outcomes research. *Am J Occup Ther*, Vol. 52. No. 1. pp. 540-546, 1997.
- [11] J. D. Choi, J. K Kim, T. Y. Le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s and personalit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8, No 1 pp. 23-30, 2010.
- [12] Hofmann, S. G., Bitran.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in social anxiety disorder: Relationship to harm avoidance diagnostic subtyp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 21, No 7, pp. 944-954, 2007.
DOI: <http://dx.doi.org/10.1016/j.janxdis.2006.12.003>
- [13] Jerome, E. M., Liss, M.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8, No 8, pp. 1341-1352, 2005.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4.08.016>
- [14] Liss, M., Timmel, L., Baley, K., Killingsworth, P.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9, No 6, pp. 641-658, 2005.
- [15]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4.
- [16] S. H. Lee. Peer Crowd Affiliation, Close Friendship,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Adolescents with Depressive-Conduct Disorder.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2010.
- [17] J. D. Kang. The correlation between LCSJ and IIP-C.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sung university, 2006.
- [18] H. S. Kim. Study on intro-extroversion, cognitive sty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Dep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19] Cho, Y. S. Th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education Kyunsung University, 2004.
- [20]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1953.
- [21] Rook, K.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6, No 5, pp. 1097-1108,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6.5.1097>
- [22] E. H. Choi. Effects of Child Abuse and Parenting Attitudes on Relationship in Early Adulthood Intimate. Dept. of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02.
- [23] H. J.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9.
- [24] K. A. Lee., H. H. Chung.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orean J Couns Psychother*, Vol. 11, No 2, pp. 213-226, 1999.
- [25] H. D. Lee. *The practice of human relationship training*. Seoul: Chungang Attitude Publishing Co. 1992.
- [26] S. L. Lee.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s improv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improvement through MBTI.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ong University, Daegu, 2000.
- [27] Ryff, C. D., Singer, B.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Vol. 9, No 1, pp. 1-28, 1968.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i0901_1
- [28] Kagan, J.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1994.
- [29] S. H. Cho, W. S. Choi. Psychodynamic art therapy of the college for human relationship problem. *Korea J. Art Therapy*. Vol. 14, No 2, pp. 257-293, 2007.
- [30] E. J. Kang.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sensory processing skills of handicapped children and sensory processing skills of their mothers. Health public graduate school in choo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2010.
- [31] Elman JB., Johnson MH. *Rethinking Innateness: A Connectionist Perspective on Development*, Cambriges, MA: MIT Press, 1966.
- [32] Bundy AC, Lane SJ, Murray EA.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2nd ed, Phiadelphia: FA. Davis, 2002.
- [33] Dunn W, Brown CE. *Factor analysis on the Sensory*

Profile from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m J Occup Ther, Vol. 51, pp. 490-495, 1997.

DOI: <http://dx.doi.org/10.5014/ajot.51.7.490>

[34] Dunn W. The impact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on the daily live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 conceptual model. Infants Young Child, Vol. 9, No 4, pp. 23-35, 1997.

DOI: <http://dx.doi.org/10.1097/00001163-199704000-00005>

[35] Kientz MA, Dunn W. A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autism on the Sensory Profile. Am J Occup Ther, Vol. 51, pp. 530-537, 1997.

DOI: <http://dx.doi.org/10.5014/ajot.51.7.530>

[36] Kim J-K, Choi J-D Lee T-Y. The Study of Adult Sensory Proces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Vol. 15. No. 3. pp. 117-125, 2007.

[37]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38] Y. H. Kim, Y. K. Jin, Y. R. Jo, J. H. Kwon, S. H. Hong, E. Y. Park.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manual. pp. 11-96. Hakjisa. Seoul. 2002.

남택길(Taek-Gill Nam)

[정회원]



- 2002년 7월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의학과 (이학석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자연과학전공 (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재활, 물리치료, 운동역학

이지현(Ji-Hyun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 수료)
- 2006년 4월 ~ 2012년 8월 : 충남도립청양대학 작업치료과 조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충북 영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재활, 보건, 작업치료